

전원석방!
수배해제!



후원회소식

후원회소식 · 제2호 · 1989년 6월 10일

1989년 6월 20일 후원회소식 제2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발행인 / 문익환
주소 / 종로구 명륜동2가 193-6
불란서제과 3층
전화 / 763-2606, 764-1684

“사회 안전법 폐지 국회 결의”

“감옥 아닌 감옥”의 문이 열리다.....

이번 5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5/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반인권적, 반통일적 악법인 사회안전법이 폐지 되고, 대체 법안으로 보안감호제도를 없앤 “보안 관찰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 보안감호소에 있는 35명의 장기복역 양심수가 석방되게 된다. 개폐된 법안의 시행령에 의하면 공포후 3개월후에 발효되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생활 터전 준비를 위해 1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늦어도 10月 중순까지는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한백렬씨 등 피보아간호자 34명과 서준식, 강준건씨 등 보안관찰, 주거제한자 21명은 헌법재판소에 조준희변호사 등 6명의 대리인을 통해 사회안전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는 위헌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사회안전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또 재판도 이루어 지지 않은 채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감호가 결정되는 등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안전법은 지난 75년 제정된 이래 그 법안의 문제성은 누누히 지적되어 오고 있었으나 폭압적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언급을 회피하여 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 알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지난해 석방된 강종건(왼쪽)씨와 수감중인 한백렬씨의 아들 한선화씨가 2월22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사회안전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88년 6월 미전향수인 서준식·강준건씨가 석방되면서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위해 백기완, 김승훈, 이우정 선생 사회원로 인사들을 추진 위원으로 하는 “사회안전법 철폐 추진 위원회 (이하 사·안·추)가 88년 11월 25일 구성되면서 그 운동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사·안·추는 그간 자료집 발간, 공청회, 국회의원 교섭, 농성등을 벌여 왔으며, 지난 2월말에는 명동성당 앞마당에서 가두 단식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사·안·추의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도 폐지가 야3당간에 합의되기도 하였으나, 민정당의 반대와 공화당의 입장변화,

민주·평민당의 동요등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제서야 ‘보안관찰법’으로의 대체로 귀결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3년이상 복역한 사람들은 3개월에 1회씩 판활경찰서에 청기보고를 할 의무조항과 이를어길때 “2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새로 신설시켜 출소한 사람들의 감시와 벌칙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공포후 3개월이후 발효라는 시행령과 최근 신문에 보도된 출소자 5만여명의 신변파악중이라는 사실등도 이와 연관된 군부정권의 준비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은 문제는 이번에

석방되게 될 35분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느냐하는 것이다. 이들 35명중 직접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은 15명내외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30년이상의 장기 수용생활을 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인데다가, 대부분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번 새로 마련된 법안에 의하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으나, 석방된 사람들의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때, 과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쟁쟁원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에 인계되는데, 이경우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되거나, 사는 동안 외부 사람과의 면회 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분들이 남은 여생동안 이제껏 누리지 못한 자유로운 삶과 여유있는 삶을 살살아나가고, 우리나라 현대사의 숨겨진 부분을 밝히는데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추와 양심수 후원회가 주축이되어 각계의 도움을 받아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구교도소 장기복역양심수 서성칠씨 사망

지난 5월 9일 대구 가야 기독병원에서 80년 3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 받고 10년 복역중 이던 서성칠씨(57)가 다발성 간종양으로 사망하였다.

서성칠씨는 지난 80년 3월 선장으로 재직도중 일본에 사는 장인을 찾아뵌 것이 빌미가 되어 부산 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70일간의 물고문, 발톱뽑기고문, 구타, 잠안재우기 등의 참을 수 없는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으며, 고문 후 유증으로 복역 기간중 내내 고통에 시달려 왔다.

고 서성칠씨는 작년 연말부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움직이지도 못한채 누워서만 지내왔으며, 동료 재소자 2명의 도움으로 식사, 배설

등을 해오며 지내왔다. 이에 가족들과 동료재소자들은 소장면담등을 요구하며 외부 병원에서의 치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2차례에 걸친 외부병원에서 신경외과 관계의 형식적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진찰시 내과 진료를 병원측에서 권유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내과진찰을 하지도 않고 돌아온것이 막혀졌다. 더욱이 의무과장 이 정문은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괴병이다”는 망언만 되뇌이며, 진통제는 계속 투약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실행해 보지 않고 있었다.

민가협 장기수기족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대구지역 제민주 단체는 유가족들과 함께 2차례에 걸친 대구교도소 항의방문, 대구교도소장,

보안과장, 의무과장에 대한 고발조치, 제인권단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호소 활동을 전개 하여왔다.

특히 서성칠씨의 유가족과 부산 민가협회원들은 장례식이 있은 5월

11일 80년 당시 서성칠씨는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한 경찰관인 이덕만(현 부산시경 대공분실장)의 집과 부산시경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장기복역 양심수에 대한 부당한 처우”

지난 88년 11월말 법무부 당국의 행형제도 개선으로 양심수들에 대한 신문구독, 친족이외 면회, 서신허용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시국이 경직되어 가는 분위기에 편승 법무부 당국은 지난 5월 16일 대구·광주·전주에 수감중인 장기복역양심수 50여명에 대한 기습적 이감을 단행하였다.

장기수에 대해서는 이감이 거의 없었던 전례와 이번 이감의 규모를 볼때 이는 장기복역 양심수들에 대

한 정신적·물리적 탄압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더우기 각교도소로 이감간 장기복역양심수들은 모두 0.75평~1.2평 내외의 정벌방 혹은 독방에 수용해 놓고 있으며, 신문구독, 사책 차입제한 등의 부당한 처우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장기복역 양심수들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현재 대구·전주로 이감간 부당한 이감에 대한 해명,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옥중에서 온 편지

이 철 선배님께

안녕하십니까? 이제서야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전으로 내려온 이후 계속 두통과 피로에 시달리다 보니 편지 한장 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몸은 곧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철 선배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미 졸업한 길을 저는 이제 반쯤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선배님께서 훨씬 흑독한 정역살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야 상대적으로 좋아진 세상에서 유유자적 편히 살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 세상에서는 「간첩」이라도 남들이 조금 이해를 하여 주고 또 그리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는 희망도 있고, 소내생활도 그리 곱살지는 않으니까요. 선배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시련을 맛보며 무척 고생하였을 줄로 압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서서히 살아 있는 사람의 감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고기국을 먹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일주일에 두어번 고기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야 거의 보이지 않지 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죄도 으로 생각하고 아주 원수처럼 여겼

기 때문에 일평생 고기국을 먹이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저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지 않고 사형집행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국을 먹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런데 대전에서 고기국을 먹으면서 별달리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는 저를 문득 발견하고 제가 정상적인 사람의 감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차츰차츰 정상적인 사람의 감각으로 회복되겠지요.

대전에 오셔서 넣어주신 영치물은 잘 받았습니다. 역시 선배님께서는 「빵집이」 답게 김, 고추장 등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도록 여러개씩 넣어 주셨더군요.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누어 먹지는 않았습니다. 명태포를 사다가 김, 고추장 등을 양념으로 하여 밀반찬을 만들어 갖고 밀반찬을 전부 나누어 드렸지요.

이제 글을 마쳐야겠습니다. 이철 선배님의 유달른 애국심이 귀중한 열매를 맺고 민족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9. 3. 19 대전교노소에서 김성만
울림

▶ 감옥으로 부치는 편지

301-2-5-1
대22시 유성구 대정동
대22 교도소
유한복
보내는 사람 132-205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6-13
안 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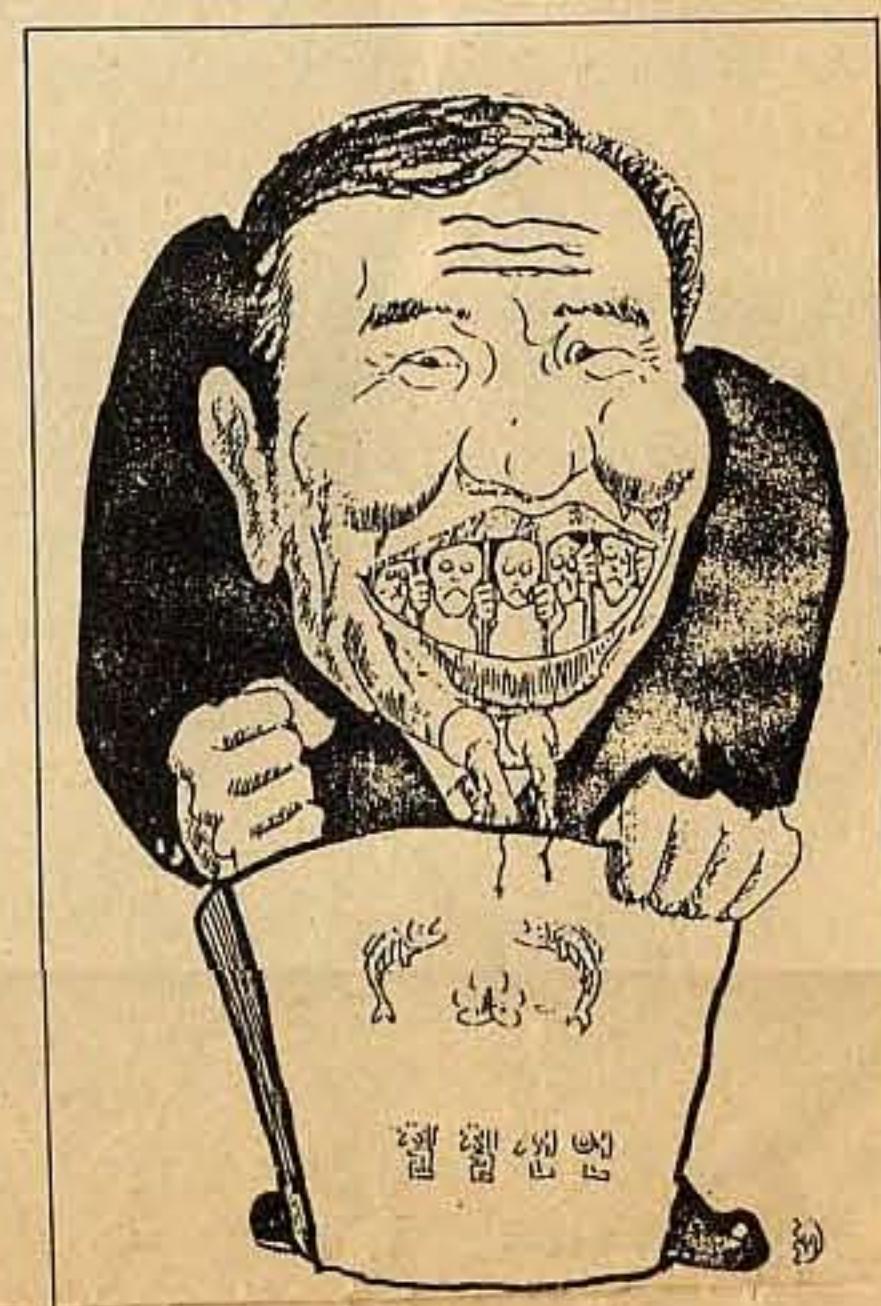
할아버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4월에 할아버지를 면회한 50대 여인입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면회창안에서 그처럼 처음 면회온 사람이라고 반가워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엽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친정아버님도 할아버지처럼 흰머리이셨고 시아버님은 중풍으로 고생하였었지요. 모두 저 세상 사람이십니다. 모두 모두 늙어가시고 저희세대도 이렇게 늙어 가는데 아버님 같으신 할아버지. 그렇게 감옥에서 오래오래 고생하시어 어떻게 합니까. 40 청년시절부터 옥살이 이시니 두고온 가족들이 얼마나 애태우셨을까 또 어머니는 눈 못감고 저 세상가시지나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를 뵙자마자 눈물적시시던 모습에서 분단의 설움을 속으로 톳곡했습니다.

내 아버지 같은신 할아버지. 저도 가끔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

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어려움 극복하시고 오래 사시어요. 꿈속에서나마 자유를 누리시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무의탁양심수들을 가슴아파하고... 「양심수 후원회」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날을, 통일의 그날을 함께 기다려요.

「성프란치스코」란 책과 약간의 영치금도 함께 부칩니다.

89. 5. 21



“제 2회 양심수 전원석방촉구 시민가요제” 열려

양심수 석방염원 한목소리 울려 퍼져.....

지난 5월 5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작년에 이어 제 2회 양심수석방 시민가요제가 열렸다. 최근 구속자가 많이 발생하여 시기를 앞당겨 빠르게 개최 했다라는 사회자의 말처럼 구속자의 가족과 구속자의 동료동 3000여명이 참가하여 밤 10시가 되어서야 ‘동지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자리 를 정리하였다.

오후 4시 풍물패의 길놀이가 시작되면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는 집단줄넘기 해방춤, 고리잡기등의 대동놀이가 1부행사로 열렸으며 5시 30분부터 임진택씨의 사회로 본 행사가 시작되어 17개 참가팀의 노래 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고마들의 “양심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와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의 ‘구속 동지 석방하고, 노태우를 전동차로 박살내자’란 이색적인 구호가 제창되어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양심수 후원회’도 임원진과 최연 소회원, 최고령 회원등이 참가하여 문익환회장님의 석방과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염원하며 “동지여 내가 있다”는 불러 관객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백기완 심사 위원장이 밝힌 심사기준(1. 민주화 투쟁에 대한 기여도, 2. 군부독재를 물리칠만한 음성 3. 민중적 정서를 담아낼 음악성)에 따라 영광의 대상인 「전원석방상」에는 ‘노동조합’과 ‘동지여 내가 있다’를 조직적 울동과 힘찬 하모니로 불른 현대중공업 구속자 가족, 「공안합수부 해체상」은 성남노동자 노래패 다영글, 「국가 보안법 철폐상」은 유가족 협의회와 한겨레 신문 노조, 「수배 전면 해제상」은 민족교실, 전민연, 삼양유지 노조, 「백골단 해체상」은 장기수 가족협의회, 「사회안전법 철폐상」은 서울 지하철노조가 받았다.

작년 12·21 석방조치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양심수 석방 투쟁이 최근 800여명에 달하는 시국관련 구속자의 급증에 따라 다시 급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5월 20일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전민연사무실에서 ① 공안행수부, 안기부해체 ② 국가 보안법, 사회 안전법 폐지 ③ 양심수 전원석방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하였으며, 같은기간 〈전국 교도소 옥중투쟁 위원회〉에서는 위의 동일한 요구 가지고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구속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속 노동자 석방은 요구하는 집회 농성등이 계속 되고 있다.

5月 23日~5月 25日 까지 구속 노동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구속 노동자 가족협의회”가 평민당사에서 ① 구속 노동자 석방, 수배자 수배해제 ② 공안행수부 해체를 요

구하는 농성을 전개하였으며 6월 4일 〈서울 노동조합협의회〉와 노동단체, 구속자 가족등이 서울에서 ‘구속노동자석방 및 노동악법 철폐집회’를 가진 것을 필두로 성남, 인천 대구 마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 농성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겨레 신문 노동조합〉 〈민족문화 작가회의〉 〈서울 민중연합〉 〈노동해방문학〉 〈평화연구소〉 〈한국출판 문화 윤동 협의회〉 〈동의대 사건 구속자 가족 협의회〉 등 각 계 각종의 제 단체로 단체 회원, 가족들의 석방은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 되었다.

하루 4.3명 이상 구속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민중운동 탄압 사태가 계속되는 한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집회, 농성등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며 나아가 정국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 이 대상된다.

양심수 전원석방 투쟁이 다시 불붙어 오르고 있다

양심수 면회기

조무하 / 부회장

대 전시 유성구 대경동 36. 「대전교도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도시로 손꼽히는 서울로부터 불과 2시간 거리인 이곳에 평균 26년여 복역중인 67명의 장기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 30년 이상 복역중인 사람이 21명, 20년 이상 복역중인 이가 27명이나 된다. 최장기 복역수로는 올해로 40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이라는게 몇 평 감옥의 독방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대전교도소에 있다.

오후 1시 10분 교도소 앞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도 일반수처럼 누구나 면회할 수 있다는 행정제도가 발표된지 6개월의 지금, 더구나 이미 수차의 면회의 전례가 있었는데도, 다시금 민원실 앞에서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좋게 좋게 말해야 한다(트집을 잡으면 정면승수를 하겠지만).

최익현씨(64세, 무기, 28년 복역), 유한옥씨(75세, 무기, 30년 복역) 두 분을 면회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오면 어떻하느냐' '면회은 사람들의 신원이 확실해야 한다.' '지난번 면회를 왔었으니 시켜준다.' 등의 잔소리쯤은 듣기 좋은 노래로 쳐야하는 것이다.

보고·기사, 또 보고를 거듭하는 동안 가져간 김법으로 점심을 때웠다.

주부로서 집안살림도 바쁜데, 아침부터 서둘러 식구들을 챙겨 출근, 등교시켜 놓고, 부랴부랴 면회하려 동행하시는 「양심수 후원회」 어머니회원들의 모습은 푸근함을 느끼게 한다.

두어시간의 재촉 끝에 우리는 겨우

우 교도소 문안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유한옥씨는 30년 복역 중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몇 번씩이나 고마운 인사에 모두 숙연할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30년간 영어의 몸으로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 활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발음 조차 분명치 못한 분이었다.

안청자어머니께서

“저희 시아버님도 중풍이셨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오래 사셨어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움직이세요.”

하시자 다시 눈물을 글썽이시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무어라 더 위로의 말이 나올까. 서로손 한번 잡아 위로해 주지 못함을 아쉬워 하는 어머님들. 미소면 얼굴로 거듭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 분은 30년만의 면회로 약간 홍분되어 상기된 모습으로, 오히려 어린이와 같은 맑고 흔들림 없는 차분한 의지를 보여 우리를 감동시켰다.

1년에 한번 있을까 하는 이런 면회, 약소한 영치품들이 오늘 저녁 사동안에서 얼마나 얘기거리일지를 우리는 들어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력함이 더욱 아쉽고 부끄러웠다.

지난 1월 40년을 복역하다 이곳 대전교도소에서 타계하신 조용순씨. 악성종양이 온몸에 퍼지도록 진통제 몇 알로 방치되다가 운명 몇 시간 전에 형집행정지로 육문을 나선 대구교도소의 서성칠씨의 경우가 있었기에 돌아오는 우리의 발길은 무거웠다.

수십년간 세상과는 일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온 이들을 면회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막으려는 교도소·법무부·당국의 「교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 사설 ▶

“장기 복역 양심수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최근 한 두 달 사이에도 많은 죽음을 목도 하였는데 그 중, 신문 한 커트에 지나칠듯 소개된 한 죽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간첩의 누명을 쓰고 십년 가까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고 서성칠씨의 죽음이다. 지난 5월 14일 자로 발간된 본 후원회의 「대구교도소 장기 복역 양심수 서성칠 선생 사망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정상급인 진단과 치료의 제공이 무시되어 그야말로 생명이 다되게 되자 병원 이송과 형 집행정지를 내리고 그 직후 사망 하였다는 것이다.

술한 사건들 속에 묻혀 버리고 만 이 죽음을 우리는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먼저 서씨의 죽음은 끊임없이 철폐의 요구가 높은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 서씨에게 술한 고문과 15년이라는 형의 선고를 가능케 한 것이 국보법, 반공법상의 간첩죄 혐의였던 때문이다.

외항선 근무자로서 일본에 있는 자신의 장인을 두세 차례 방문한 것이 사실의 전부일 뿐이다. 이렇듯 아주 자연스러운 가족 친지의 접촉 조차도 국보법의 위력 앞에서 간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서씨의 죽음은 지옥같은 교도소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선원 생활을 해 왔던 서씨가 부산 시경 대공 분실에서의 70일간의 고문 수사와 10여년의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치명적 병을 얻고 제대로 된 진료 한번 못 받고 사망하기 까지의 교도소 생활은 가히 상상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국가보안법이라는 최대의 악법 문제는 일단 논

의로 치자. (왜냐하면 제민주 단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력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십수년씩의 징역살이를 강요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더불어 그 교도소 생활의 지옥같은 비인간적 삶의 모습이다. 서씨의 경우 수감이래 지속적인 신경통, 88년 겨울부터의 강력한 요통의 발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 마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진통제 정도와 형식적인 진단으로 넘어가고 외래 종합진찰을 요구하는 가족에게 서씨가 꾀병을 부린다는 등의 거짓으로 무마하여 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죽음이 임박해서야 병원에 보내는 '살인적 행위'를 저지는 것이다. 더구나 가망없다는 병원의 진단이 내려지고 바로 형집행정지를 내리는 기민함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우리는 상식의 선에서 보아도 교도소라는 곳은 수감자의 교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수감자의 건강과 안위를 보호하는 곳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서씨의 사망에 접하면서 우리 한국의 교도소가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에게 최소한 진료를 통한 건강한 삶을 지속할 권리조차 완전하게 박탈하고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가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외에 교도 행정 당국에 촉구한다. 이번 서성칠씨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절대 재발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대상의 방문, 편지 보내기, 모금활동을 하여왔다. 이러한 사업은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점증하는 구속사태에 대한 본 후원회의 활동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제 막 출범한 양심수 후원

회가 당장 모든 일을 잘 해낼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양심수 후원회의 결성 정신에 동의한 우리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의견 제기를 하고 토의를 한다면 후원회 사업의 폭은 더욱 넓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김용구회원)

회·원·논·단

“늘어나는 양심수와 양심수 후원회”

최 근의 신문·방송은 연일 구속자와 잇따른 구속수사 지시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한동안 줄어들고 있던 양심수가 그 보도 횟수 만큼이나 늘어나고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우리 후원회의 회장이기도 하신 문목사님, 노동현장의 노동자, 캠퍼스의 학생, 참교육을 선언한 교사등 이제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수감중인 장기 양심수들.

지난 3월 출범한 양심수 후원회가 출범 이후 주로 장기 양심수들

새로 가입하신 분들	정법스님 김재성 신황호 유시춘 김창호 오정수 홍창욱 강인한	석법안 스님 조성자 최현미 구규상 청년과학 기술자협의회 김복래 이진호 이정신	김원재 최점려 방은영 안청자 천민숙 김홍석 홍정림 정 인	성경희 김명규 김상기 이해경 전순옥 이주변 이순녀 박길림	조수선 박길림 문영희 권봉례 임창호 곽선복 최재봉 이행자 박길림	이성호 여운승 최점술 권봉례 임창호 곽선복 최재봉 이행자 박길림	김이영 유상덕 김귀순 홍필교 이영옥 서화자 정서오 강정자 성낙돈	김선희 정계연 신천구 백혜현 홍필교 황동렬모 김성재 한상권 홍명희 신동욱 박이현
(89. 6. 10 까지)	(이상무순)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문익환 회장님의 1심 첫 재판이 잡히었습니다.

- 북한 방문으로 구속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신 양심수 후원회장 문익환 목사님의 첫재판이 6월 26일 오전 10시 서소문 서울지원에서 열립니다.
- 문익환 회장님은 현재 옥중에서 독서와 시를 쓰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 문익환 회장님은 가족과 변호인단의 보석신청 요구를 거절 하시며, 구심재판까지 모든 재판을 "통일을 위한 장"이 되어 통일의 열망은 다시금 담아 내시고자 하고 있읍니다.

2.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 지난 4月 민·가·협의 이전과 함께 양심수 후원회도 종로구 낙원동에서 "종로구 명륜동 2가 193-6 불란서제과 3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3. 모든 회원은 1달에 1번 1통의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안양 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458번지 # 430-083
- 영등포 교도소 :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 152-080
- 서울 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430-800
- 대전 교도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302-251
- 광주교도소 :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88-1 # 500-110
- 대구 교도소 :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472 # 711-830
- 전주 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동 3-99 # 560-280
- 안동 교도소 :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121 # 762-800
- 청주 보안감호소 :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148 # 360-202
- 미납된 회비의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재정을 보고 드립니다.

(3/19 창립 ~ 5月末)

- | | | |
|--------------|-------|-----------|
| • 전기이월 | | 1,476,110 |
| (4月) | | |
| • 총수입 | | 2,343,070 |
| 회원회비 | | 2,108,570 |
| 자료판매수익 | | 234,500 |
| • 총지출 | | 2,251,150 |
| 1. 창립대회 추가지출 | | ..22,800 |

- | | |
|---|-----------|
| 2. 청주 보안감호소 영치금(35명 * 5,000) | 175,000 |
| 3. 대구 교도소 영치금 소액환발송 | 271,200 |
| 소액환(48 * 5,000) = 240,000 | |
| 수수료(48 * 100) = 4,800 | |
| 발송비(48 * 550) = 26,400 | |
| 4. 대전 교도소 면회(최 익현, 유 한우) | 32,540 |
| 영치금(10,000 * 2) = 20,000 | |
| 차 입 품 | 12,540 |
| 5. 교도소 방문비용 | 120,800 |
| 광주, 청주 방문 | 30,000 |
| 대구교도소 방문 | 40,000 |
| 부산 민가협 방문 | 20,000 |
| 대전교도소 방문 | 30,800 |
| 6. 민·가·협 지원금 | 500,000 |
| 7. 광주 후원회 창립 축의금 | 20,000 |
| 8. 간사 월급(3, 4월분) | 300,000 |
| 9. 장기 복역 양심수 실태보고서 제작(1, 2판 1100부) | 450,000 |
| 10. 후원회 소식지 제작(600부) | 120,000 |
| 11. 소식지, 자료집 발송비(국내외 회원) | 89,410 |
| 12. 사무실 이전 소식 공문발송비(국내외회원, 단체) | 48,000 |
| 13. 후원회원 모집카드제작(3판 -1000부) | 50,000 |
| 14. 비품 구입(봉투 400부) | 11,400 |
| 15. 4월 잡비 | 50,000 |
| (5月) | |
| • 총수입 | 582,690 |
| 회원회비 | 523,000 |
| 자료판매 | 59,690 |
| • 총지출 | 590,600 |
| 1. 청주 감호소 영치금(3000 * 35) | 105,000 |
| 2. 경기 남부 노동자 영치금(10,000 * 6) | 60,000 |
| 3. 대구교도소 서성칠시 사망조의금 | 20,000 |
| 방문경비 | 20,000 |
| 보고서작성, 발송 | 15,600 |
| 4. 장기수 가족협의회 농성, 대구교도소 항의 방문투쟁 경비지원 | 150,000 |
| 5. 5월간사 월급 | 150,000 |
| 6. 5월 잡비 | 50,000 |
| • 잔고 | 1,560,120 |

• 구속자 현황

(89년 6월 10일 현재 인가형조사)

- | | |
|--------------------------|------|
| • 장기복역 양심수 | 265명 |
| 30년 이상 복역 | 36명 |
| 20~29년 이상 복역 | 45명 |
| 10~19년 이상 복역 | 87명 |
| 10년 미만 복역 | 37명 |
| • 12월 21일 석방조치에서 제외된 미결수 | 10명 |
| • 12월 21일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 402명 |
|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 180명 | |
| 농민운동 관련 구속자 : 19명 | |
| 재야인사 구속자 : 17명 | |
| 학생운동 관련 구속자 : 166명 | |
| 출판인 : 14명 | |
| 양심전경 : 6명 | |
| 총계 677명 | |

이·달·의·시

햇빛 한참

유한우 선생님의 운동시간

감옥살이 30년
반신불수 노인의
햇빛 한참을
15 척 담장 너머
어느 마른 덤불 위
— 집에집에집에
멧새가 운다.

집 떠나온 지

30년 남는 세월 은백색 머리
남은 치아 앞니 하나 은백색 눈썹.
꺾인 나뭇잎처럼 시들어버린
냄새나는 조막손...

—나무 지팡이, 언제나 모습 보이는
목공에서 만들어온
나무 지팡이
생고무 밀창 댄
나무 지팡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선생님
반신불수의 걷기운동
성한 몸 아니라서
천천한 걸음걸이
원발 오른발 원발 디딜 때마다
비트적비트적 비트적거릴 뿐.

사형장 맞바라기
하얀 벽 칸막이 운동장 햇빛 한참을
—하아아아아
한숨소리 터질 뿐.

조각난 강토
드높은 담장 안에서
일흔넷 맞는 봄
우러러보는
깊고 깊은
조각난 하늘.
갇힌 자—

고문당하고 끓이고 옥에 갇힌 자
갈라진 하늘 아래 영영.
바깥 세상 못 나가는
슬픈 칸막이 안의 부자유한 선생님은
30년 고난을 모아
통일조국 그리운
한숨소리 터질 뿐.



● 이용하실 송금 구좌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498-860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498-860 (양심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 송금하신 후에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할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우 리가 자유, 정의, 민주의 성과를 함께 나누어 갖듯이
분단, 독재로 인한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뜻있는 애국국민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763-2806, 764-1884